

현대 여성 데님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조 아 라 · 박 명 자*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Fusion Phenomenon in Contemporary Women's Denim Coordinated Fashion

Ara Jo · Myoung-Ja Park* · Youn-Hee L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1. 3. 28. 접수; 2011. 5. 3. 수정; 2011. 5. 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sion phenomenon that appears in contemporary women's denim fashion in order to find a way to come up with a creative denim design.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documents related to fusion phenomena and consider precedent studies to establish a criteria for analyzing fusion phenomen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usion phenomena in modern women's denim can be categorized into fusion of time, fusion of space, fusion of gender, fusion of culture, and fusion of genre. Fusion of time appears as fusion with the past and fusion with the future. Fusion of space appears as fusion with Asia and fusion with other regions. Fusion of gender appears as unisex, androgynous, and genderless. Fusion of culture appears as fusion with subcultures such as grunge, kidult, lingerie, hippy look, hip hop fashion, etc. Finally, fusion of genre appears as fusion of materials, fusion of style, and fusion of circumstances. Second, when analyzing the frequency of appearance for fusion phenomena, fusion of culture appeared with a frequency of 29.7%, followed by fusion of genre with 19.1%, fusion of time with 10.5%, fusion of gender with 9.9%, and fusion of space with 8.5%. When analyzing the most frequently appearing fusion phenomena by year, fusion of culture appeared the most from the year 2000 to 2004, fusion of space and time in 2005, fusion of genre from 2006 to 2007, fusion of culture again in 2008 and 2009, and once more fusion of genre appeared the most in 2010.

Key Words: Fusion phenomenon(퓨전현상), Women's denim fashion(여성데님패션), From 2000 S/S collection to the 2010 F/W collection(2000~2010년 컬렉션)

I. 서론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국제화 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20세기

이전엔 상상할 수 없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의 공유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퓨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가치와 문화의 혼합, 정보 통신의

발전, 이념의 붕괴 등은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 있어 퓨전 현상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21세기를 대표하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융합, 통합, 융해’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퓨전 현상’은 음악, 미술, 건축 등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여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서양의 서로 다른 디자인의 퓨전, 과거의 전통 의상의 디자인의 활동, 계속 개발되어지는 신소재의 활용, 색다른 아이템들의 혼합 등 2000년대 이후의 컬렉션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데님’은 원래 직물의 이름으로 19세기 중반에 청바지로 만들어지면서 작업복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점차 대중화되며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어간 청바지는 1980년대 유니섹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잠시 대중들에게 멀어졌던 데님은 2000년대 후반 다시 붐을 일으키며 세계 4대 컬렉션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의 사용, 다양한 워싱 방법의 사용 등으로 패션의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 진에 이어 프리미엄 진이 나타나면서 캐주얼의 대명사였던 데님의 의상이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나 데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데님을 응용한 디자인이나 상품기획 개발, 소재개발 측면의 워싱 가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해체주의 표현 연구(이소령, 2008)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 다시 강세를 띄고 있는 데님 의류에 대하여 현재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라는 퓨전 현상과 연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코디네이션 현상을 퓨전현상과 관련하여 조사 분석하여 데님 디자인 및 패션 관련 산업 분야에 패션성과 시대성에 맞춰 창의적이고 다양한 데님 의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데님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데님 의류에 대해 알아보고, 퓨전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하여 현대 데님 패션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떠한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나며 그에 따른 디자인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데님의 발달과 특성

1) 데님의 정의와 유래

사전적 의미의 데님(denim)은 날실에 인디고 염색을 한 10-14번 수 굵기의 감색사를 사용하고 씨실에 12-16번 수 굵기의 백색사를 사용하여 능직으로 짠 두꺼운 면직물을 말한다. 원래 데님이란 명칭은 실을 염색한 것이 아닌 거친 피륙을 염색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강하고 내구력이 있어 작업복이나 가구·침대 등의 커버 등에 주로 쓰이나, 최근에는 나일론 등의 인조 섬유와 혼방하여 비교적 유연한 천을 만들어, 실용적인 여성리유나 아동복에도 사용하고 있다. 데님의 어원은 프랑스 남부의 님(Nimes)지방에서 생산되던 능직의 면직물의 이름 “님의 서지(Sergede Nime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면서 데님(denim)이 되었다고 한다(김민아, 2002).

데님과 같은 뜻의 단어로 우리에게 친숙한 ‘진(jeans)’이 있는데, 진의 어원은 이탈리아의 제노아(Italy Genoa)지방에서 생산되던 직물의 이름이다. 진의 조직 역시 능직이고 면섬유를 사용한 직물로 경사와 위사에 20-4번수의 면사를 사용하고 직물은 단색으로 염색되어있다. 용도는 데님과 흡사하여 데님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직물의 이름이었던 데님 혹은 진은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텐트 천으로 작업복(overalls)를 발명하여 광부의 작업복 바지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진으로 만들어진 팬츠를 ‘블루진(blue jeans)’으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19세기 후반, 표백하지 않은 파란색 실로 데님을 선보이면서 서지로 만들어진 바지를 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데님 혹은 진이 직물의 이름 뿐 아니라 의복의 한 종류의 이름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다.

흔히 데님(denim)과 진(jean, 진즈(jeans)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데님과 진은 능직의 면으로 짠 직물이며, 진즈는 진

이나 데님으로 만든 바지를 말한다. 데님과 진도 거의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직물학적으로 구분하자면, 데님은 선염된 면사로 짠 능직(twill)의 옷감이고, 진은 선염, 후염 모두에 사용된다. 청바지라고 하면 위에서 말한 ‘블루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세탁을 할 때마다 진한 색상이 탈색되어 조금씩 열린다. 이 신비한 푸른 염료를 ‘인디고’라고 하는데, 인디고 염료는 인도가 원산지인 ‘인디고페라 텅토리아(indigofera tinctoria)’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가장 오래된 염료로 약 4000년 전에 ‘울’의 염색에 사용되었으며 1500년경에 면 염색에 사용되어졌다(naturaldyeing). 천연 인디고 염료는 인도에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거쳐 1600년경 미국으로 전파되어 1850년대 말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에 의해 블루데님의 염료로 사용되었다. 그 후 1800년 독일의 화학자 본 보이어가 분자 구조식을 밝혀 내면서 합성 인디고 염료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천연 인디고와 구조적으로 성분이 같고 불순물이 없어 사용이 더욱 안전해졌다는 이점도 있다.

2) 데님의 발달과정

데님의 출현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스트라우스의 블루진(blue jean)으로, 이 바지는 ‘리바이의 바지(Levi's pants)’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872년 제노바(Nevada) 카슨(Carson)시의 양복점 주인인 자콥 데이비스(Jacob Davis)는 Levi Strauss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그들은 당시 힘든 작업에 주로 쓰이는 청바지의 터지기 쉬운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 리벳(rivet)을 붙이는 방법을 고안하여 1873년에 특허를 받았고, 이때부터 리벳이 첨부된 블루진이 시작되었다(오희선, 2000). 이것이 리바이스 진이 ‘오리지널 리벳티드 클로징’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유니폼으로 입던 데님 작업복이 전쟁 후 재고가 남자, 1940년대 말 유럽에서 남은 청바지를 판매하면서 유럽에 청바지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전쟁 중과 전후 산업 사회에서 여성들이 산업노동에 뛰어들면서 여성들도 데님 작업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도 청바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노동자들과 일치단결의 표시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60년대 말에 크게 나타나는 유니섹스 차림의 첫 신호라 볼 수 있다. 남녀구분 없이 점차 캐주얼화된 차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최혜숙, 2009). 1954년에 최초로 염색된 청바지가 발매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가 마친 후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변혁의 영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유니폼으로 채택되면서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이혜영 외, 2000).

한국에서는 1950년 전쟁 이후 암시장을 통해 미국에서 청바지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청바지’라고 명명하였다. 1956년 태창 기업에서 처음으로 데님 원단을 만들면서 국내 데님 패션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장안화, 2000). 이 시기에는 평화시장, 청계천을 중심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블루진을 제조하였으며, 품질도 낮고 염색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지만, 통기타를 치는 가수들로부터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청년 문화의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팝 뮤지션들의 패션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착용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데님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청바지의 붐이 일어났다.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유니섹스가 1970년대에 꽃을 피운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여성의 청바지 수요가 급증하여 프랑스에서는 1965년부터 스커트보다 팬츠의 생산량이 많아졌으며 팬츠 중 단연 청바지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에 들어 다양한 소재로 팬츠가 만들어지면서 청바지의 유행은 잠시 주춤하게 된다. 그러나 1985년 캐서린 햄넷(Katharine Hamnett)의 디스트로이드 진(destroyed jeans)의 상품화와 리바이스사의 ‘리바이스 501’의 부활, 에시드 워쉬(acid wash) 가공법의 개발로 다시 청바지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김해순, 2002). 또한 캐주얼 뿐 아니라 스포츠웨어로도 강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유라벨을 사용하여 청바지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청바지의 해외 브랜드 도입이었다. 82년 최초로 ‘쥬다쉬’가 도입된 데 이어 83년 ‘리바이스’, 84년 ‘씨지오바렌떼’ 등이 줄줄이 수입되었다. 1983년도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진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자체 브랜드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데님이 21세기의 새로운 의식을 표현하며, 데님 웨어의 영역에 제한 없이 핑크, 빈티지, 로맨틱 등 다양한 스타일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면서 안티패션이 아닌 주류패션이 되었다. 톱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데님 웨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데님은 패션의 고급화와 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고가 데님 브랜드들에 의해 럭셔리 열풍의 메인 아이템이 되었다. 갖가지 워싱 기법이 발달하고, 자수, 비즈, 유리 등으로 화려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패셔너블하게 처리된 데님 웨어가 패션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프리미엄 진이 등장하면서 럭셔리 브랜드 진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세계 유명 컬렉션에서 다뤄지면서 현재 다시 데님이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2.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1) 퓨전의 개념

퓨전(fusion)이란 ‘fuse’에서 파생된 말로 ‘융해, 융해, 통합, 융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언어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다는 것이다(김소라, 200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는 이 용어는 혼합(混合), 이종교배(異種交配), 하이브리드(hybrid), 크로스오버(cross over),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컨버전스(convergence)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며 약간씩 그 뜻의 차이가 있다.

퓨전 현상은 20세기에 들어서 다다이즘(dadaism)과 팝 아트(pop art)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20세기말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문화 현상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하이브리드, 생물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이종교배 등과 달리, 퓨전은 문화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두 가지 이상의 문화 요소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뜻하며,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박문희, 2009). 1990년 말 이후 퓨전현상은 네트워크가 발달로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다양한 가치, 문화들의 혼합과 정보통신의 발전, 이념의 붕괴 등은 결국 모든 영역에 있어서 퓨전 현상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패션에서의 최초의 퓨전 현상은 스포츠 부상에 따른 바지 착용 및 여성복의 남성화, 동방 세계에 대한 동경심에서 시작된 중국풍의 장식 및 머리모양과 블룸머(bloomer)의 동양풍의 바지 등으로 나타났다. 1900년대 초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이집트 풍의 에스닉 룩과 역사주의로 나타났으며,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와 동양을 포함한 비서양 지역의 대부분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되면서 서양복식에 동양의 영향도 한층 심화되었다(최수아, 2003).

패션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하이브리드 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 절충주의적 양식과 해체주의적 양식이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소재사용의 변화, 착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절충과 해체, 성에 대한 절충과 해체, 하위 패션 문화의 도입 등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다(하미희, 2009).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문희(2009)는 2000~2008년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의 여성 횡편 니트 패션으로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시간의 혼합을 과거의 혼합, 미래의 혼합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고, 공간의 혼합

을 중국 전통 복식의 혼합, 일본 전통 복식의 혼합, 북유럽과 기타 지역의 혼합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또한 상·하위문화의 혼합은 키덜트(kidult)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그런지(grungy)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 속옷의 요소와 하이패션의 혼합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남·여성의 혼합과 스타일의 혼합, 타소재의 혼합, 기능의 혼합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하미희(2009)는 2002~2007년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의 여성복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간의 하이브리드적 특성은 과거와 현재의 레트로 룩, 현재와 미래의 퓨처리즘 룩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문화의 하이브리드적 특성은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상위와 하위의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안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중국과 일본, 한국, 인도의 오리엔탈리즘, 젠 스타일의 두 소재목으로 살펴보았으며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는 모즈 룩, 히피 룩, 힙합 패션, 에스닉의 세 소재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에스닉도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모로코라는 더 작은 소재목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와 하위의 하이브리드 특성은 스포츠와 하이패션, 캐주얼과 하이패션, 특수복과 하이패션이라는 세 가지의 소재목으로 분류하였다. 성의 하이브리드적 특성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호모 섹슈얼리즘의 네 가지 소재목으로 나누었다. 마지막 기술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는 패션 소재, 기술 발달이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2002~2007년의 7000여 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어떤 혼합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지, 어떤 디자인 요소와 아이템이 사용되었는지 연구하였다.

김경란(2005)은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의 범위는 2002~2005년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이고, 여기서는 패션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 분석의 결과만 보기로 한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에 대해 연구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과 하이브리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스포츠와 하이패션, 스포츠와 캐주얼과 하이패션, 특수복,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러시아 에스닉, 모로코 에스닉, 알프스 에스닉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컴퓨터 응용제품, 스포츠 보조 및 스포츠 의류 개발 사례의 항목으로 연구하였다.

김소라(2003)는 2000~2003 서울 컬렉션의 패션 디자이너 쇼를 중심으로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을 연구하여 시간적 퓨전, 공간적 퓨전, 성의 퓨전, 룩의 퓨전 네 가지로 퓨전의 양상을 구분한 후 어떠한 표현 방법과 특징이 나타나는가에 주목하였다. 김소라는 특히 서울 컬렉션의 디자이너 중 지춘희, 이정은, 홍은주의 세 명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누가 몇 회 컬렉션에서 어떤 퓨전 현상을 보였는지 연구하였다.

최수아(2003)는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시간, 공간, T.P.O.의 퓨전에서 시대의 퓨전은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퓨전을, 공간의 퓨전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걸친 지역들의 퓨전을, T.P.O.의 퓨전에서는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가 컬렉션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른 문화의 퓨전에서는 푸어룩, 히피룩 등의 하위패션이 상위문화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의 퓨전에서는 매니쉬룩부터 젠더리스에 이르기까지를 분석하였으며 장르의 퓨전에서는 소재 및 스타일의 퓨전, 현실과 가상의 퓨전, 자연과 인공의 퓨전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의 퓨전 현상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퓨전,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퓨전, 중국, 일본과의 공간의 퓨전과 스포츠, 캐주얼, 특수복과 하이패션의 퓨전, 앤드로지너스와 유니섹스, 젠더리스로 나타나는 성의 퓨전, 소재의 퓨전을 찾을 수 있었다(표 1).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선행연구

		박문희 (2009)	하미희 (2009)	김경란 (2005)	김소라 (2003)
시간	과거	■	■	■	■
	미래	■	■	■	
공간	중국	■	■		■
	일본	■	■		
	첸스타일		■		■
	북유럽	■			
	러시아				■
	한국		■	■	
	인도		■		
성	유니섹스	■	■		
	앤드로지너스	■	■		■
	젠더리스	■	■		
	호모섹슈얼리즘		■		
문화	키덜트	■			
	그런지	■			■
	속옷	■			
	모즈 룩		■		
	히피 룩		■		
	힙합 룩		■		
	에스닉		■		
	스포츠		■	■	■
	캐주얼		■	■	
특수복		■	■		
스타일	정형과 비정형	■			
	아이템 혼합				
기술	소재	■	■		
	기술발달		■		

III. 현대 여성 데님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

오늘날 데님은 연령, 성, 인종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의 작업복에서 시작된 데님 의상은 이제 바지뿐만 아니라 남방, 원피스, 스커트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저항, 자유, 개성 등의 상징으로 의미 역시 다양하

게 변화해왔다. 작업복에서 청년 문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대다수가 소유하고, 착용하는 의복 아이템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사회적 배경, 개인의 심리적 욕구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문 연구와 자료 고찰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을 크게 시간, 공간, 성, 문화, 장르의 퓨전으로 구분하였다. 실증적인 자료를 위해 사례 선정의 과정과 그 분석에서 패션 디자인 전문가 집단 조사를 병행하였다.

1차 과정에서는 현대 여성 데님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 전문 인터넷사이트 www.style.com을 통하여 세계 4대 컬렉션의 2000년도 S/S 부터 2010년도 F/W까지 나타난 여성 패션 데님 사례 1,200여개를 수집하였다. 본 사이트는 아이템별 카테고리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데님 아이템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자료 선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차 과정에서는 1차 과정에서 수집한 1,200개의 여성 데님 패션 사례 중 연구에 사용될 사례를 선별하였다. 디자이너가 한 시즌에서 데님 소재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시즌의 한 명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10~20개의 데님 아이템이 발표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퓨전 특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3가지만 선별하였다. 또한 전체 코디네이션에서 데님 아이템이 50% 이상 나타나는 사례를 선별하였으며, 시각적으로 데님 아이템의 특징이나 퓨전 현상이 불분명하게 나타난 경우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06개의 아이템을 선별하였다. 3차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추출한 사례들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박사 5명과 석사 5명과 연구자,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 S/S-2010년 F/W의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여성 데님 패션디자인 사진을 시간의 퓨전, 공간의 퓨전, 성의 퓨전, 문화의 퓨전, 장르의 퓨전의 5개의 분류에 따라 그 빈도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퓨전 현상의 연도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문화의 퓨전이 606개 중 180개(29.7%), 장르의 퓨전이 116개(19.1%), 시간의 퓨전이 64개(10.5%),

성의 퓨전이 60개(9.9%), 공간의 퓨전이 52개(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퓨전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례는 102개(16.8%)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 퓨전 현상은 2009 S/S와 2010 S/S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9 F/W에는 특이하게 퓨전 현상이 없는 데님 사례의 개수가 많았다. 2006 F/W에는 상대적으로 장르의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2009 S/S와 2003 S/S에는 문화의 퓨전 현상이 돋보였다. 2005 F/W에는 시간의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표 2).

1. 시간의 퓨전 현상

1) 과거와의 퓨전

여성 데님 패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퓨전은 복고주의인 레트로룩과 원시주의인 프리미티브룩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2001 F/W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 by Marc Jacob)의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은 데

님 원피스의 허리를 벨트로 강조하여 A라인으로 현대적으로 접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우 미우(Miu Miu)에서도 2001 F/W의 데님 패션은 상하의를 모두 데님 아이템으로 입었는데 워싱되지 않은 생지의 느낌에서 초기 청바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004 S/S의 클로에(Chloe)는 밑위가 긴 청바지에 스트라이프 무늬의 블라우스를 코디하여 70년대 유니섹스 무드의 레트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2005 F/W 컬렉션에서 언더커버(Undercover)는 찢겨진 청바지에 부츠를 코디하고, 상의에 거친 질감의 술을 전체적으로 장식하여 원시적인 느낌으로 옛스러움을 연상시켰다. 디스퀘어드(Dsquared)는 로 라이즈의 청바지에 과감한 비비드 컬러의 모자, 상의, 걸옷을 코디하였으며,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패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유행하던 미니멀리즘이 청바지와 함께 표현되어 재해석되었다. 또한 비블로스(Byblos)는 마치 동물의 털처럼 보이도록 데님 소재를 워싱하여 상하의를 같은 소재로 코디하였다.

<표 2> 연도별 퓨전 현상의 출현 빈도

특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시간	0	0	0	2	2	4	3	2	4	1	0	8	5	2	4	2	3	0	9	2	5	5
	0		2		6		5		5		8		7		6		3		11		10	
공간	3	1	0	0	8	2	4	0	4	4	1	7	1	1	0	0	0	0	6	1	8	8
	4		0		10		4		8		8		2		0		0		7		16	
성	0	2	2	5	1	7	4	2	2	1	0	1	2	2	2	3	1	1	8	3	7	7
	2		7		8		6		3		1		4		5		2		11		14	
문화	2	4	4	5	9	8	15	6	11	2	3	4	11	1	2	3	10	1	22	11	12	12
	6		9		17		21		13		7		12		5		11		33		24	
장르	0	1	2	4	3	1	7	5	8	0	2	3	6	10	4	4	4	0	10	1	15	15
	1		6		4		12		8		5		16		8		4		11		30	
없음	2	3	1	4	6	6	5	4	3	2	2	3	6	2	1	2	4	1	2	11	13	14
	5		5		12		9		5		5		8		3		5		13		27	
복합	0	0	3	8	4	2	0	1	0	0	0	0	1	1	0	0	1	0	2	0	6	2
	0		11		6		1		0		0		2		0		1		2		8	
총계 (%)	7	11	12	28	33	41	38	20	32	10	8	28	31	19	13	14	24	3	60	29	85	62
	18		40		74		58		42		36		50		27		27		89		127	
	(2.9)		(6.6)		(12)		(9.5)		(6.9)		(5.9)		(8.2)		(4.4)		(4.4)		(14)		(21)	

2) 미래와의 퓨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2003 S/S 컬렉션에서 데님 패션은 역동적인 라인의 데님 스커트에 상의를 실버 컬러의 비닐 소재로 표현하고 블랙 컬러의 선그라스와 매치하여 스페이스 룩을 현대적으로 접목하였다. 빛바랜 듯한 데님 스커트와 광택있는 상의 소재와의 접목은 더욱 현대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역시 2003 S/S 컬렉션에서 실버 소재로 된 상의를 데님 청바지와 함께 코디하였는데, 반짝이는 장식이 달려 광택이 나는 실버 상의는 수영복처럼 커팅하고, 골드 장식이 스티치처럼 되어있는 베이지 컬러의 겹옷을 걸쳐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2005년 D&G의 FW 컬렉션에서는 짧은 데님 스커트에 골드컬러의 광택있는 가죽 모피점퍼로 코디네이션한 현대적이며 미래적인 퓨처리즘 룩을 선보였다. 현대여성 데님 패션의 과거와 미래의 혼합현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공간의 퓨전 현상

1) 아시아와의 퓨전 현상

공간의 퓨전 현상은 최근 중국의 패션산업이 대두되면서 중국적 요소가 결합된 패션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데님 패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2006 S/S 컬렉션에서 중국전통 남성복인 칭파오의 디자인을 여성 데님 재킷으로 디자인하여 발표하였다. 워싱턴에 오래된 것 같은 빈티지 느낌의 데님 재킷과 흰색 팬츠, 밀짚모자를 연상시키는 모자와의 코디네이션은 오히려 현대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카루 워커(Karen Walker)도 2008 S/S 컬렉션에서 중국 전통 여성복식인 치파오의 칼라형태를 응용하여 중국 전통복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원피스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일본의 전통적 복식과의 퓨전현상은 2010년 S/S Limi Feu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데 70년대 겐조 컬렉션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

<표 3>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시간의 퓨전

구분	과거와의 퓨전	미래와의 퓨전
실루엣	통이 약간 넓은 밑위가 긴 청바지 무릎 바로 위로 올라오는 미디스커트 맨트를 이용해 허리 라인 강조	역동적인 형태의 라인 사용, 독특한 커팅
디테일	도트, 스트라이프 무늬 등의 블라우스	광택이 나는 골드, 실버 등의 컬러, 빛에 의한 색상 사용
소재	상, 하의를 같은 소재의 데님 아이템으로 코디네이션 워싱하지 않은 생지의 데님, 원시적인 질감의 소재 사용	PBC 등 차갑고 광택 소재, 금속성 느낌의 가죽 소재 사용
데님 패션 사례	 <p>Marc by Marc Jacobs 2001 FW Chloe 2004 SS Undercover 2005 FW (출처: www.style.com)</p>	 <p>Christian Dior 2003 SS Dolce & Gabbana 2003 SS D&G 2005 FW (출처: www.style.com)</p>

풍의 디자인을 데님으로 변형하여 발표하였다.

2) 기타 지역과의 퓨전 현상

2003년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의 컬렉션에서는 영국 전통 직물인 타탄체크의 재킷과 데님 팬츠의 코디네이션을 선보였다. 또한 데님 팬츠의 옆선에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가미하여 스포티하고 전통적인 코디네이션으로 보여진다. 2004년 D&G의 컬렉션에서는 밑단 옆선에 강한 대비색의 지퍼디자인이 들어간 7부 스키니 팬츠와 스페인 전통 투우사의 화려한 핑크색 재킷과 접목하여 전통적이면서도 화려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D&G 컬렉션에서는 데님 패션이 많이 등장하는데 2010년 F/W 컬렉션에서는 유럽 전통 노르딕 패턴을 얇은 쉬폰 소재에 프린트하여 블라우스로 디자인하고 워싱된 프린트 스키니 데님 팬츠와 털부츠를 혼합하여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데님패션을 코디네이션하였다(표 4).

3. 성의 퓨전 현상

성의 퓨전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등으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까샤렐(Cacharel)은 2002 F/W 컬렉션에서 통이 넓은 청바지에 두꺼운 벨트와 블랙 앤 화이트의 셔츠를 매치함으로써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3 S/S 컬렉션에서 안나 수이(Anna Sui)는 옐로우 컬러의 레이스 소재로 만든 원피스에 데님 소재의 재킷을 코디하고 빅백을 코디네이션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교차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폴 스미스(Paul Smith)는 흰색 셔츠와 작업복 스타일의 벨벳 데님 팬츠를 코디네이션하고 네이비 컬러의 남성전용 재킷을 입혀 남, 여성의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컬렉션에서는 밑단을 높게 접은 데님 팬츠에 화이트 셔츠와 데님컬러의 재킷을 매치하고 화이트 셔츠에 커다란 보타이 느낌의 장식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남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젠더리스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09 F/W의 윌리엄 러스트(William Rast)는 스키니한 블랙 워싱데님 팬츠에 마치 남자친구의 재킷을 빌려입은 것 같은 빅 사이즈의 더블버튼 재킷을 코디네이션하여 앤드로지너스

<표 4>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공간의 퓨전

구분	아시아와의 퓨전	기타 지역과의 퓨전
실루엣	서양 의복의 입체적인 구조에 동양 의복의 여밈, 컬러 등이 부분적으로 응용	러시아 귀족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사용
컬러	화려한 원색 컬러 사용	여러 민족의상의 문양을 패턴화 토속적인 컬러 사용
소재	거칠게 된 것과 깨끗한 워싱처리 된 데님 등이 같이 나타남	민속의상에 사용되는 소재, 장식, 패턴 등이 워싱되거나 프린트된 데님 소재와 코디되어 사용
데님 패션 사례	 <p>Ralph Lauren 2006 SS Karen Walker 2008 SS Limi Feu 2010 SS (출처: www.style.com)</p>	 <p>Marc by Marc Jacobs 2003 FW D&G 2004 SS D&G 2010 FW (출처: www.style.com)</p>

〈표 5〉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성의 퓨전

구분	특 징
실루엣	스키니한 팬츠와 빅 사이즈의 상의나 겹옷을 코디네이션 보이프렌드 핏의 팬츠에 중성적인 상의나 재킷의 코디네이션 여성스러운 원피스나 스커트와 남성 슈트의 스트레이트 실루엣 혼합
컬러	블랙 앤 화이트의 무채색 계열의 색상 사용 네이비, 브라운 등 어두운 색상 사용
디테일	남성적인, 혹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 넥타이, 비니, 빅벨트 등 남성적인 아이템 사용
소재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는 재킷이나 셔츠소재, 딱딱한 느낌의 소재
패션 사례	<p>Cacharel 2002 FW Anna Sui 2003 SS Paul Smith 2003 SS Yohji Yamamoto 2006 SS William Rast 2009 FW Ralph Lauren 2010 SS</p> <p>(출처: www.style.com)</p>

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랄프 로렌은 2010년 컬렉션에서 복고적이며 빈티지한 통이 넓은 팬츠와 재킷 남성들의 전용으로 인식되어있는 모자를 코디네이션하여 남, 여성의 퓨전현상을 표현하였다(표 5).

4. 문화의 퓨전 현상

상, 하위문화의 퓨전 현상은 그런지룩, 키덜트 룩, 란제리 룩, 모즈 룩, 히피 룩, 힙합 룩 등의 다양한 하위문화가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상위문화와 퓨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 S/S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오르는 코르셋과 같은 상의와 통이 넓은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란제리 룩의 느낌을 데님 패션으로 코디네이션하였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2002 F/W 컬렉션에서 올 풀린 데님 플레어 스커트의 투피스 위에 짧은 가죽멜빵을 코디네이션하였는데 올 풀리고 헤진 듯한 빈티지한 디

자인이 어울어져 더욱 현대적인 데님 패션을 연출하였다. 디스퀘어드의 2006 F/W 컬렉션에서는 상류사회의 점유물로 인식되어있는 전통 승마복의 여성복 상의를 데님으로 디자인하여 3색선의 밑단처리로 현대적이며 멋진 승마복을 발표하였다. 랄프 로렌은 빈티지하게 위치처리 된 헐렁한 팬츠 위에 낡은 듯한 패치워크로 장식하고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레이스 상의 재킷과 코디네이션하여 상, 하위문화의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Chanel은 데님소재로 과감하게 디자인된 수영복과 같은 짧은 팬티와 데님 재킷을 코디하여 데님 란제리 룩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프랭키 모렐로(Frankie Morello)는 우아함을 풍기는 여성 모델에게 데님셔츠와 승마용 팬츠 느낌의 데님 팬츠위에 가죽 브레이저를 착용시켜 묘한 코디네이션으로 상, 하위문화의 퓨전 현상을 표현하였다(표 6).

5. 장르의 퓨전 현상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대 여성패션은 소재 및 스타일의 퓨전, 현실과 가상의 퓨전, 자연과 인공의 퓨전, 에콜로지와 모던 테크놀러지의 상호 보완, 전통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들의 퓨전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었다. 스타일의 퓨전에 대해 박문희(2009)는 정형과 비정형의 실루엣의 퓨전, 서로 다른 아이템들이 함께 사용되는 연출 등을 연구하였다. 비대칭 표현, 과장된 표현, 부분적 크기의 확대나 축소, 비율이나 폭의 과장 및 축소 등 모두 정형과 비정형의 실루엣의 퓨전으로 연구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이미지의 아이템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와 형태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수아(2003)는 T.P.O.의 퓨전이라고 해서 란제리 룩과 인프라 패션, 스포츠 캐주얼 등을 이야기했으며 하미희(2009)는 스포츠와 하이패션, 캐주얼과 하이패션, 특수복과 하이패션의 퓨전을 상하위문화의 퓨전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데님 패션에 나타난 소재의 퓨전, 스타일의 퓨전, 상황의 퓨전 등을 장르의

퓨전 현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001 S/S 장폴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컬렉션에서는 좌우 비대칭의 데님 팬츠, 네트 스타킹, 스포츠용 신발 등을 코디네이션하여 소매 부분을 강조하여 새로운 형태의 퓨전 패션을 만들어냈다. 라파에트 젤러리(Lagerfeld Gallery)의 2002 F/W 컬렉션에서는 데님 원피스에 레드 컬러의 모피 소재로 가슴과 소매 부분을 장식하여 타 소재와의 퓨전을 시도하였다. 2002 F/W의 컬렉션의 요지 야마모토 의상은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퓨전을 시도하는 듯 코디네이션 하였으며 데님 원피스의 디자인도 비정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절개를 하여 스타일의 퓨전도 시도하였다. 2006 S/S Y-3 의 컬렉션에서는 모델이 데님 스커트에 빨간 색의 러플이 달린 겹옷을 입고 흰색의 빨간 헬멧을 손에 들고 나와 여성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여러 상황이 혼합된 퓨전 현상을 보여주었다. 2010 S/S 프랭키 모델로는 데님과 가죽 소재와 트레이퍼리한 소재 등 여러 소재의 퓨전을 시도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되는 스타일의 퓨전을 나타내고 있다. 샤넬(Chanel)은 2008 S/S 컬렉션에서 상, 하위가 연결되고 옆선이 파인 팬츠위에 리본장식을 부착하고, 체크무늬 짤

<표 6>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문화의 퓨전

구분	특징
실루엣	빅사이즈의 팬츠로 힙합 패션과의 퓨전 나타냄 여성스러운 뉴룩라인, 핏티드 라인, 쇼트팬츠 등의 다양한 실루엣
디테일	울풀림, 다양한 위징 등으로 그린지한 느낌 표현 키치한 프린팅으로 키덜트적인 느낌 표현
소재	레이스, 비치는 소재, 가죽 등으로 란제리룩과의 퓨전 나타냄
데님 패션 사례	 <p>Christian Dior 2001 SS Alexander McQueen 2002 FW Dsquared 2006 FW Ralph Lauren 2006 SS Chanel 2008 SS Frankie Morello 2010 SS</p> <p>(출처: www.style.com)</p>

〈표 7〉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장르의 퓨전

구분	특징
실루엣	드레이퍼리한 실루엣과 몸에 붙는 실루엣의 비대칭 및 혼합 실루엣 비대칭되는 내부구조선 수영복과 작업복의 혼합형 스키니 실루엣
디테일	리조트룩의 아이템과 드레스룩의 아이템 혼용 미니스커트와 오토바이용 헬멧 등의 코디네이션 등
소재	무광택과 광택의 질감 대비 거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의 질감 대비
데님 패션 사례	      <p>Jean Paul Gaultier 2001 S/S Lagerfeld Gallery 2002 F/W Yohji Yamamoto 2002 F/W Y-3 2006 S/S Frankie Morello 2010 S/S Chanel 2008 SS</p> <p>(출처: www.style.com)</p>

은 재킷을 코디네이션하여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된 퓨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화에 의해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퓨전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최근의 트렌드에 주목하여 패션에서의 퓨전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다시 사랑받고 있는 소재인 데님 아이템에 중점을 두어 퓨전 현상을 연구하여, 데님 패션 마켓에서 독창적인 디자인 창조와, 개성화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이너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그 목적을 두었다.

2000년~2010년까지의 현대 여성 데님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은 시간의 퓨전, 공간의 퓨전, 성의 퓨전, 문화의 퓨전, 장르의 퓨전 현상으로 분류되었으며,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데님 패

션의 연도별 출현 빈도는 2000년대 초반의 컬렉션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던 데님 패션이 2002년 컬렉션에서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침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s/s 컬렉션부터 데님 아이템의 사용과 데님 소재를 다룬 디자이너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퓨전 현상의 연도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문화의 퓨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장르의 퓨전, 시간의 퓨전, 성의 퓨전, 공간의 퓨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체 퓨전 현상은 2009 s/s와 2010 s/s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는 데님 패션의 출현 빈도와도 비례한다. 2006년 f/w 컬렉션에서는 상대적으로 장르의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2009 s/s 컬렉션과 2003 s/s 컬렉션에서는 문화의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2005 f/w 컬렉션에서는 시간의 퓨전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퓨전 현상은 과거와의 퓨전과 미래와의 퓨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거의 퓨전은 레트로 룩의 분위기로 다양한 길이로 표현되고 있었다. 프리미티브 룩으로서의 데님 패션은 워싱 소재를 응용하여 빈티지하거나 원시적

인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퓨처리즘 룩으로는 역동적인 형태의 라인, 독특한 커팅과 광택이 나는 골드, 실버 등의 컬러, 소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공간의 퓨전 현상은 아시아 지역과의 퓨전과 기타 지역과의 퓨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리엔탈 룩은 서양 의복의 입체적인 구조에 동양 의복의 여밈, 컬러 등이 부분적으로 응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지역으로는 모로코, 알프스, 러시아 등의 지역의 에스닉을 말하는데 각 민족의상의 문양이나 컬러 등이 사용되어 퓨전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성의 퓨전 현상은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등으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이성의 아이템과 헤어스타일을 차용하고, 남성 슈트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여성스러운 아이템과 혼합하거나,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있다.

다섯째, 문화의 퓨전 현상은 키덜트, 그린지, 란제리, 히피룩, 힙합룩 등의 하위패션이 상위패션과 혼합된 현상을 말하는데, 각각의 하위패션의 특성과 디테일을 하이패션에 적용하였다. 특히 프린팅이나, 워싱, 올풀림 등의 표현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여섯째, 장르의 퓨전 현상으로는 소재의 퓨전, 스타일의 퓨전, 상황의 퓨전이 나타났는데 어울리지 않은 소재를 함께 사용하거나, 좌우가 비대칭되는 컬러와 실루엣을 사용하는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퓨전, 리조트룩과 드레스 룩의 퓨전 등 상황의 퓨전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현대 여성 데님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퓨전현상의 특징은 글로벌 시대의 문화 교류와 과학 기술의 발달, 이질적인 요소의 퓨전으로 표현 가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데님 소재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아이템과 디테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여성 데님 패션의 퓨전현상 연구가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데님 패션 시장의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소재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 데님 디자인에서는 스마트 웨어와의 퓨전이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퓨전 현상은 한 패션 사례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요소의 퓨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틀에 맞춰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참 고 문 헌

- 김경란. (2004).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2002). *데님(Denim) 패션 디자인 연구 - 신규 브랜드 상품 기획·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2003). *서울 컬렉션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연구-'01 s/s-'03 s/s 패션 디자이너 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순. (2002). *데님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 스티치 장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문희. (2009).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 현상 -2000~2008 여성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령. (2006). *현대 데님 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 외. (2000). *21세기 패션 정보*. 서울: 일진사.
- 장안화. (2000). *진즈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숙, 노운선. (2009). 데님(Denim)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패치워크(Patch work) 기법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2(6), 99-103.
- 하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희선. (2000).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서울: 교학 연구사.
- 레이철 루이스 스나이더(최지향 역). (2009). *블루진 세계를 읽다*. 서울: 도서출판 부키.

장흥기. (2010. 5. 6). 인디고페라(인도쪽), 자료검색일 2010. 5. 20, 자료출처 <http://www.naturaldyeing.or.kr/xe/dyeing02/12331>

2000 SS ~ 2010 FW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0. 2. 1~2010 3. 30, 자료출처 <http://www.style.com>